



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명절에 드리는 예배는 제사를 대신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3원의 은혜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목도 다같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3-5)

찬송 28장 (통일찬송가 28장) / 다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 가족중에서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든 시기가 있었고, 형통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온가족이 함께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읽기 시편 128:1-6 / 온가족이 함께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나눔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가정 / 인도자

하나님 안에 있는 복된 가정

시편 128편에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위한 축복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받는 복에 대해 묵상해보겠습니다.

첫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 수없이 언급되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늘 넘쳐야 합니다. 그 길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둘째, 수고한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수고한대로 열매를 거두고 수고한대로 먹는 풍족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남는 것이 없고, 수고한 만큼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는 형통한 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가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온 가족의 안녕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3절에는 아내와 자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손길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복을 받고, 아내인 어머니도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되며, 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굵고 잘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 발을 상상해 보십시오. 풍성함이 마음 가득 전해집니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부음을 받을 때 그 감람기름으로 부음을 받습니다. 성전 등잔에 불을 밝힐 때도 이 기름을 사용합니다. 상처를 치료할 때나, 식용으로도 사용합니다. 감람나무와 그 기름은 이렇게 여러 용도로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우리 자녀가 감람나무처럼 세상에 소중하게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시편 128편에 나오는 가정처럼 하나님 손 안에서 복된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과
비전나눔

찬송

온 가족이 함께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덕담으로 축복하며 자녀들은 자신의 비전을 온 가족과 함께 나눕니다.

301장 (통일찬송가 460장) / 다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배마침

주기도문 / 다같이